며칠 전 이화에서 마지막 공연을 마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캠퍼스를 둘러보니 어느 새 마지막 가을이 한창이더군요. 마지막 공연의 허무함과 마지막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이화에서의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이화에서 춤을 추는 시간들은 결코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여성을 혐오하고 이화를 폄하하는 사회와 끝없이 맞서 싸워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끔은 이화에서 뜬 눈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해서 지친다고, 차라리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모른척하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화에서 혼자 걷는 삶을 배웠습니다. 이화에 입학하자마자, 저는 수 많은 선택지 앞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누구도 ‘여자’라는 이유로 눈 앞의 선택지들을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갈림길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기에 저는 오직 저에게만 묻게 되었습니다. ‘하령아, 어디로 가고 싶니?’ 하고

그렇게 선택한 삶은 온전히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매일의 옷차림을 고르는 작은 선택부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선택까지, 그 누구도 제가 택한 것을 비난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들은 오롯이 제가 책임져야 하는 선택들이었으며 그 책임이 저를 도서관으로, 연습실로 이끌었고, 하루 하루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걷는 삶이 결코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시험기간 새벽에 이화의 교정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해가 뜨지 않은 그 이른 시간에도 이화인들이 열람실에 앉아 고요 속에 책상 스탠드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지성의 빛을 바라보고 있자면 제 아무리 차가운 새벽이라 해도 가슴 한 켠이 다정히 데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분명히 저와 다른 길을 가는 빛이겠지만, 스스로의 삶을 묵묵히 책임지고 있는 이화인들을 생각하면 춥지도,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 빛들은 제가 무용연습을 할 때도, 광화문에 모여 촛불을 들 때도, 이화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함께 해주었고 곁을 내주었습니다. 여느 축제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도, 대학가의 네온사인처럼 흥겹지도 않지만, 묵묵히 새벽을 가르는 그 빛이야말로 제가 등대로 삼아야 할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사회가 여자라는 이유로 나의 길을 흔들지라도 이화에서 배운 것처럼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 의연하게 걷고자 합니다. 아마 곁에서 함께 걷지 않더라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각자 걸어갈 많은 이화인들의 힘이 필요한 일이겠지요. 이 모든 배움과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고, 제게 삶의 영감을 선물해준 이화, 감사합니다!